■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장기기증 118 화장서약 567명

증심사·수덕사 법회 … 헌혈봉사단 발족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지난 18일과 22일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부 증심사(주지 영조)와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에서 각각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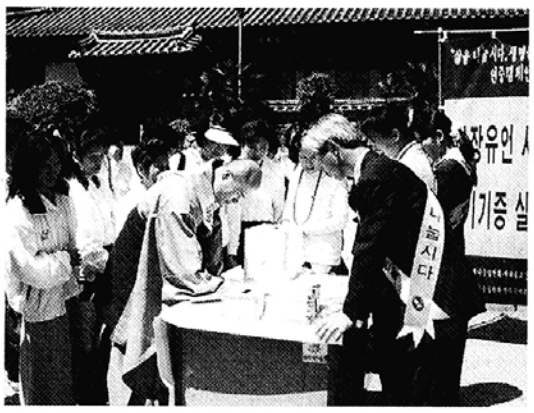
증심사와 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열린 광주행사에서 영조스님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자비보살행의 실천"이라며 "고통받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행사에서는 41명의 신도들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모두 112명이 장기기증에 서약했으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 90명을 비롯해 무등산 등산객들도 참여하는 등 총 436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했다. 또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자비헌혈봉사단' 광주지역 모임 발대식도 함께 거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올 연말까지 대구 충남 전북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자비헌혈봉사단'을 조직,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보살계 수계법회와 함께 열린 수덕사 행사에서 법장스님은 5백여 참가 사부대중에게 "육신은 버리고 가는 것이니 집착할 것이 없다"며 "장기기증과 화장운동에 동참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수덕사 행사에서는 6명의 신도가 장기기증을, 137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143명이 이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 예산=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증심사 캠페인에는 등산객들도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수덕사법회에서는 보살계를 수지한 신도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장암 어린이 수술비 모금 '흐뭇'

광주 증심사 행사에 동참한 불자들이 신장암을 앓고 있는 이영우(9세, 광주 대자초등학교 2년) 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지난 3월초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에서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영조스님도 수술비를 보태는 등 이날 행사에서 150여만원이 모아졌다. 그러나 수술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움주실 분은 이영우 어린이의 집 (062)-527-7096번이나 생명나눔실천회 (02)734-8050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기기증 등록(총 118명)

▶증심사 (112명)

김명주 김치영 박옥남 양성현 이옥희 이재홍 김명주 김치영 주종권 이진중 홍지원 이원규 이혜진 김명기 심창호 이정순 김순성 박희완 윤충구 송경옥 김영민 정현욱 양문승 임정수 마희연 김혜정 김형열 김인자 권수용 김정옥 김정숙 겸향순 정명옥 민화숙 박명숙 박경순 이미순 김석근 한은주 강명호 한은영 임홍주 유미성 김향심 김연경 김승택 김태헌 안희정 이윤철 이상우 유수진 이향숙 정철 이정자 정현주 김수양 조연행 박숙자 최형남 박종찬 맹영자 김영섭 박영은 박진경 박미선 김혜정 강영선 손유경 최남옥 이경운 조희영 최명자 이경숙 안점수 이명희 이미자 조영미 이영애 왕정임 박용섭 박수남 박귀녀 문지현 이정자 최영화 신재현 서영숙 정진옥 류현숙 임정금 이영숙 김양수 최삼례 구민심 김경화 서윤엽 김복례 차인자 박남심 정순례 양완모 어지형 오두환 윤숙영 김지영 김태익 이옥희 이태범 양미숙 여복임 이지현 이재홍 김명주 이현옥 정태희 박보현 안은정 박미재 장기현 최현숙 장기천 서선자 조미란 이정숙 이덕의 최춘화 김영희 김종순 김경태 김영순 전래성 박인애 박영현 이란숙 이성애 조봉호 송양숙 이혜연 송인갑 문광석 김민정 김호연 노순호 문연숙 정미숙 최성휴 문근 양성현 윤숙진 주용직 이남석 주미정 임양희 김용섭 김경순 문성수 이종민 문형자 최시영 김정연 박광엽 최현박옥남 최호성 양성현 이옥희 이재홍 김명주 김치영 주종권 이진중 홍지원 이원규 이혜진 김명기 심창호 이정순 김순성 박희완 윤충구 송경옥 김영민 정현욱 양문승 임정수 마희연 김혜정 김형열 김인자 권수용 김정옥 김정숙 겸향순 정명옥 민화숙 박명숙 박경순 이미순 김석근 한은주 강명호 한은영 임홍주 유미성 김향심 김연경 김승택 김태헌 안희정 이윤철 이상우 유수진 이향숙 정철 이정자 정현주 김수양 조연행 박숙자 최형남 박종찬 맹영자 김영섭 박영은 박진경 박미선 김혜정 강영선 손유경 최남옥 이경운 조희영 최명자 이경숙 안점수 이명희 이미자 조영미 이영애 왕정임 박용섭 박수남 박귀녀 문지현 이정자 최영화 신재현 서영숙 정진옥 류현숙 임정금 이영숙 김양수 최삼례 구민심 김경화 서윤엽 김복례 차인자 박남심 정순례 양완모 어지형 오두환 윤숙영 김지영 김태익 이옥희 이태범 양미숙 여복임 이지현 이재홍 김명주 이현옥 정태희 박보현 안은정 박미재 장기현 최현숙 장기천 서선자 조미란 이정숙 이덕의 최춘화 김영희 김종순 김경태 김영순 전래성 박인애 박영현 이란숙 이성애 조봉호 송양숙 이혜연 송인갑 문광석 김민정 김호연 노순호 문연숙 정미숙 최성휴 문근 양성현 윤숙진 주용직 이남석 주미정 임양희 김용섭 김경순 문성수 이종민 문형자 최시영 김정연 박광엽 최현호 김동헌 임연경 김양민 고순규 김오님 김정남 김성자 한중애 조현순 김숙경 변재영 김형열 김인자 고이석 한현숙 신지원 정현정 최영은 이지선 김지민 오선영 윤수현 윤명수 장동금 이상미 김일새 고진주 채우병 정예신 조은영 김두리 이호성 이연제 안서리 김성민 김세은 이경화 염창희 최덕남 김병국 박영형 오경아 이남섭 김소화 이창만 백찬종 김혜경 이기종 구재홍 박사순 윤선희 이정국 송재홍 박기완 강성민 윤순홍 조수행 문지선 유환철 조영왕 이미화 김미순 강안나 강지연 윤선용 정동범 윤성호 임영섭 김은복 김남철 안형국 김유심 구인형 김영리 신보미 임종민 유홍석 박현옥 이종현 송은하 이진용 서기정 이란 이정인 박경영 이한성 정용 정원석 최홍준 김영순 김태수 홍철권 범정택 이선혜 김만채 이운구 민홍식 박동자 최정진 김은영 김범철 체기중 최성철 나용운 최순자 염영희 김태우 김상샘 최봉석 임현규 정 훈 김춘홍 박상우 김노경 김현세 양호진 이혜진 김순옥 최혜숙 주종란 범형택 이여송 이예지 박현지 신군호 이용규 이재문 박세승 김재봉 서주호 김옥순 신암철 김용주 김현호 최준 나준수 전상민 주종권 신미애 이창제 정미순 전주현 최서규 김인희 정명자 정상호 박종수 최미정 강지현 김경주 김미화 최우홍 이금옥 문이수 김판오 유인주 박선희 이영희 임청웅 김수미 전순옥 김도삼 김혜영 김지선 임은주 노현미 임이랑 이정혜 김정란 고영례 김창우 김수홍 김세준 오진이 장운익 김성남 김진한 김철 박종수 안새얀 한지이 이소희 최기은 강효진 소미진 주혜원 김경희 윤민화 오혜경 정연자 김영화 박수아 권철혁 김영숙 정미경 정이슬 정슬기 최홍석 박정선 이성란 김희정 정형중 김종현 정찬 김영미 오경원 형복은 이경현 이미정 두성균 두경렬 유춘자 황용호 김현철 전효진 김신정 곽은희 나선광 문보련 강광철 신경호 이상신 윤소영 김선화 마복심 배영나숙자 홍승희 박지영 문경숙 윤규모 이향임 이정숙 김영숙 김재주 윤명임 정순례 구옥회 곽경순 서순자 김애순 조금영 유임경 김상희 유경민 김상귀 보경자 임란희 길상화 정규복 한은영 범정택 천승현 김인수 우성호 박병석 이종팔 김방글 이금순 신공례 조영희 청정심 이사남 송용옥 이정순 기예섭 김난옥 김선영 이철호 박성수 박용규 허미숙 박종현 계범스님 대행스님

▶수덕사 (137명)

강재철 강환복 고태호 곽수근 곽형근 구자희 권영숙 권옥자 금영자 김경자 김경자 김남수 김동연 김동엽 김명숙 김문수 행 김미선 김미진 김범진 김법선화 김병화 김 석 김송자 김순애 김순자 김영규 김영수 김옥상 김옥자 김용임 김정은 김종만 김종순 김종연 김학경 김향중 김화춘 류성선 박경재 박명자 박상필 박선미 박순옥 박순옥 박순화 박지영 박철현 방성호 방영호 백군자 백옥희 백용자 백정자 보성스님 석일륜 석종만 성성렬 소명희 송희숙 신용희 심재영 안명옥 안병화 양현모 오인석 오인자 오참순 오태순 원정희 원진관 유기숙 유민경 유명옥 유병엽 유시창 윤석문 윤한순 이강희 이동명 이명수 이복순 이봉구 이순효 이영순 이영애 이옥담 이주영 이평례 이한숙 이해영 임수옥 임승애 임재규 장영임 장정례 전묘인 전순자 정삼오 정세진 정영희 정오묵 정정자 정판수 정효정 조남석 조명주 조무야심 조문호 조문호 조병희 조한무 조황희 종경스님 주복희 주효정 진미정 진석스님 차춘자 최백분 최병자 최영우 최옥연 최주한 최천성 표제열 하근수 한복순 한연택 한재선 한진여심 한현주 함석이 홍관영 황계성 황규희 황원규 효정스님

"생명나눔은 불성 드러내는 일"

수덕사 법장스님 법문

보살은 병든 이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린 이에게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구법하는 이에게는 정법을 들려주어 중생을 구제합니다.

생명은 나 혼자만의 생명일 수가 없고, 너와 나 그리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져 있어서 이 세계가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을 버림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불성(佛性)을 들추어내는 일입니다. 모든 이의 불성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버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시다.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생명나눔운동이야말로 모든 불교도들이 나서서 실천해야 할 일이며, 모든 것을 베풀 때 돌아오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육신보시는 나·이웃 살리는 길"

증심사 영조스님 법문

대승보살의 수행덕목중 제일은 보시입니다. 육바라밀의 첫째도 보시로, 보시에는 재시, 법시, 무외시가 있습니다. 재시나 법시는 재물이 있거나 깨달음을 얻어야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건강한 육신과 자비로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육보시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이처럼 다함께 나누는 생명이야말로 무상한 육신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보시하는 보살행이며, 나와 이웃, 불교와 사회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장풍습으로 인해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국토가 묘지로 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지혜와 원력을 모을 때입니다.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전 사장님께 드립니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사월 초파일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절에서는 봉축 연등 만들기에 분주하며, 불교계 각 단체에서는 봉축전야제에 필요한 장엄물 제작에 한창입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서슴치 않으신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님!
회장님의 이러한 행위가 불교의 장래를 걱정하고 불교발전을 염원하는 참다운 불자라기 보다는, 개인의 명예에 탐착하는 사이비 불자로 비쳐 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장님께서는 교계신문에 일제히 게재된 '부산불교방송을 아끼는 마음으로'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거짓되고 잘못된 내용으로 전국의 선량한 불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소위 부산불교신도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누가 회장님을 존경할 것이며, 누가 류회장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리더십은 중상, 모략, 탐욕이 없이 관용과 포옹과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십니까? 스님과 부하를 매도하고 짓밟으면서까지 개인의 명예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류진수 회장님께서 직접 사주하지 안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성명서 작성에 회장님의 직원들이 적극 개입을 했다는 것과 서명한 단체장들이 "신도회 신하 단체라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다.", "류회장님이 쫓겨난다고 해서 그랬다"라든지, 류회장님과 본인의 전화내용이나 독대한 내용, 부산롯데호텔에서 S스님, 류회장님, 배회장 세분이 만난 내용 등을 부분 부분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류회장님께서 사주했다고 여기기에 충분합니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극구 부인하지 마십시오. 성명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거짓과 허구로 가득차 있는지.

1. 무적승,무단으로 태국여행 운운하는 부분과 교계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청한데 대하여…
▶무진스님은 분명히 승적이 있는 분이며, 본인의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태국정부 초청으로 3박 4일간 다녀온 것을 무진스님과 동행한 것 처럼 허위로 꾸며 서울 본사에 공문과 사람을 보내 국장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하셨죠?
그리고 "부산불교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3kw의 출력을 증강하겠다.(부산기독교방송은 이미 5kw로 방송하고 있음) 협소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현 건물대신 독립 사옥을 갖도록 하겠다."는 원력을 갖고 임기 4년이 끝나신 회장님의 뒤를 이어 후임으로 일하고 싶다는 배종진 회장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나 비전도 없이 일년에 한두번 회사에 나오시는 (98년도 종무식, '99년도 시무식 불참) 형편에 또다시 부산불교방송사장자리만을 탐하여 교계를 온통 시끄럽게 만드시는 회장님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까?

2. 배회장이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부분이나 류회장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진례공장은 회장님께서 불러서 한 번 다녀왔지 찾아간 사실이 없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직원대동) 그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표현 (청와대, 벤츠 차 이야기)은 혹시 류회장님 차 이야기나, 펑소 꿈꾸었던 소망이 아닐까요? 돈, 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분명히 회장님이 부산불교방송에 내신 보시금은 3억원입니다. 그 이상 더 내셨다면 그 내역을 만천하에 공개하십시오. 그러나 당시 회장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독대한자리에서 맹세했던 언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 있습니까? 또한 불교방송 사정을 잘아는 Y씨가 "회장님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시게 하는 것 보다 서울 불교방송 이사로 모시도록 하자"는 안을 받아들여 이사 출연금 3억도 생각하게 되었으며, Y씨가 중재를 서는 과정에서 류진수 회장님이 5억원을 요구하자 중재가 중단되었다지요? 그 중재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1월26일 아침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배종진 회장은 "돈 이야기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Y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Y씨는 "어차피 발심을 했으면 투표로 가서 경선을 하면 감정의 골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대화로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배회장을 설득하여, 그 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3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3. 3억원 수수 소문…
▶Y씨에 의하면 배회장은 유회장님께 그냥 3억원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 불교방송 이사로 모시기 위해 그 돈을 드리겠다" 배회장이 적접 드릴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것 역시 Y씨가 제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서울불교방송 이사는 하지 않겠다. 신도회에 쓰던지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셨다지요?
서울 불교방송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결국 불교방송에 애정이 없다는 말씀으로 생각되며, 신도회에 쓰던지 본인 임의대로 쓰겠다는 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산불교방송 사장으로서의 할 도리입니까?

4. 배종진 회장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5년전 부산불교실업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산불교방송 개국 당시 고 김정태 회장이 해임되고 류회장님께서 갑자기 사장으로 떠오르면서 부산 불교계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그때 패인 감정의 골이 조금도 매워지지 않은 작금 또다시 회장님께서 부산불교방송 사장자리에 연연하시면서 교계가 재차 시끄러운데 대하여 당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리라 여깁니다.
지금 류진수 회장님을 따르는 소수 신생단체장들을 포함해서 부산, 경남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배종진 회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사를 하겠다는 분이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실무 책임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회장님께서 실업인회에 사과하고 결자해지 정신으로 그쪽이나 또는 다른 분에게 부산불교방송의 운영을 부탁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며,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산불교방송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바로서는 부산불교계가 아닐까요? 아울러 사람의 과거사를 몰래 캐서 소문을 내는 행위는 참다운 불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5. 부산불교방송 사장직의 매관매직 부분에 대하여…
▶사장 자리를 매관매직하지 않겠다고 한 분이 배종진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불교방송 이사출연금 3억원에 대한 중재안에 대하여 오히려 5억원을 요구하셨다는 류회장님, 류회장님의 말씀을 배회장에 전하자 배회장은 "그런 식으로 매관매직하겠다면 처음부터 없던 얘기로 하자. 류회장님 회사가 어렵고 서울 불교방송도 어렵다고 해서 서로의 재정과 류회장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사출연금 3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돈을 더 요구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증인 있음) 결국 부산불교방송사장 자리를 매관매직으로 생각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직반하장격이 아닙니까?

6. 지난 1월 26일의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공개리에 개최되고 만장일치로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서 참관인까지 적고 있는데 대하여…
▶그 날 회의는 처음부터 취재 기자들까지도 모두 밖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개최된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심지어 사회를 보고 있던 실무국장까지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며, 삼귀의례, 반야심경을 봉독하려하자 성원보고부터 하라는 등 회의 초반부터 폭압적인 언행이 오갔으며,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까지 새어나가 소위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는 불자들의 회의라고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만장일치라는 주장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류진수 회장님이 동원한 무자격 운영위원인 모단체 모임 동료 2명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회의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날치기 만장일치가 아닐까요?
반론의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의안 채택에 있어
1. 신임이사 신임, 2. 임원선출 순서를 임원 선출 후에 신임이사 신임으로 바꾼 것은 애초부터 경쟁자를 못 들어오게 한 처사가 아닐까요?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관 한 것은 통과 후의 일이었습니다.

7. 회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조작 했다는 운운 부분에 대하여…
▶ 당시 회의의 전 부분이 녹음되어 있습니다(당시 회장님과 회장님을 따르는 몇몇 분들은 녹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녹음 테이프 공개 주장은 매우 적절한 생각 이라고 여기며, 이번 기회에 부산불교연합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할 것을 공식 제의 합니다.

8. 서울 본사에는 녹음 테이프가 올라가 있습니다.
성오 큰스님 자필 소명서 부분에 대해서…
▶범어사 주지 성오 큰스님은 지금까지의 삶을 세상의 일보다는 불법을 참구하시면서 참선수행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선승이십니다. 그런 스님께 회장님의 사리사욕을 위해 힘들고 난처한 일을 부탁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 스님께서 회장님께 베풀어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9. 무진 스님께 매수 당한 이영구 국장 운운 부분에 대하여…
▶무진스님이 여유있고 신심있는 자기 절 신도를 불교방송을 위해 보시 · 봉사하라고 권선하는 것이 분탕질입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산하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성명서를 내고, 서울 본사로 뛰어다니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5적이니, 6적이니 하며 언론사의 장들에게 애걸복걸하는 것이 분탕질입니까? 진정한 부산 불교의 자존심과 위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사로움을 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무진 스님에게 회유나 매수 당한 사실이 추호도 없으며, 혹시 회장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0. '신행단체 대표들이 객관적 시각을 갖고 검증한 결과'라고 적고 있는데 대하여…
▶부산, 경남에는 2천여 개의 크고 작은 사찰과 고승 대덕스님, 수많은 불자들이 부산불교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차라리 '부산불교신도회 직원들이 중심이 되고 신도회 산하 몇몇 신행 단체 대표들이 류진수 신도회장님을 부산불교방송 사장으로 반드시 재 추대해야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나름데로 (주관적 시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적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류진수 회장님! 저는 지난 임기 동안 회장님을 충실히 모셨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서 부하 직원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명예가 있고, 지난 30년 가까이 언론에 몸담아 오면서 가꾸어 온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회장님께서 씨앗을 뿌렸으니 본인이 거두어 들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번 임기를 마치면 사장직을 내어놓겠다고 하셨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던 날 3시간 전에 무슨 대기이던 간에 3억원을 받고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스님 앞에서 약속을 해 놓고서 회의장에서 번복하셨으며, 회장님의 사장직 유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격도 없는 회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신 점등은 해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1월 26일자 정기총회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4년 임기 종료와 함께 연임 문제도 의결해야 되는데 오직 사장님 유임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그 문제도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총회는 다시 소집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장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언행이 부산, 경남지역의 많은 스님과 재가 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그래서 부산지역 사찰 신도회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신도단체가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진수 회장님!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면 위에 다 쓸 수가 없군요. 회장님은 불교계에서 활동하신지 5~6년이 되지만 저는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도반도, 교유도 회장님보다 더 많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1964년 불교 종립고등학교를 나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했으며, ROTC를 제대하고 입산출가를 할까 하다가 언론 포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20여년간 정들었던 MBC를 떠나 제 인생의 회향으로 생각하고 부산불교방송 개국추진팀에 합류하여 개국 준비를 하자마자 싸움판이 벌어져 1년간 방황하기도 한 사실을 회장님도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불교방송의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몇몇 친분 있는 신도회 산하 단체장들로 하여금 칼을 대신 잡혀 저를 무자비하게 처사니 그냥 당할 수만 없어 항목마다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몸부림이라도 쳐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힐 그날이 있겠죠?

불기 2543년 4월
꽃이 흩날리는 봄날 새벽
불교초 이 영 구 합장 배